

The Gospel of Mark**Sermon 5**

Title: "A time to heal a time to preach"

Scripture: Mark 1:29-39

Date preached: September 25th 2022

Scripture: Mark 1:29-39

29 Now as soon as they had come out of the synagogue, they entered the house of Simon and Andrew, with James and John. 30 But Simon's wife's mother lay sick with a fever, and they told Him about her at once. 31 So He came and took her by the hand and lifted her up, and immediately the fever left her. And she served them. 32 At evening, when the sun had set, they brought to Him all who were sick and those who were demon-possessed. 33 And the whole city was gathered together at the door. 34 Then He healed many who were sick with various diseases, and cast out many demons; and He did not allow the demons to speak, because they knew Him. 35 Now in the morning, having risen a long while before daylight, He went out and departed to a solitary place; and there He prayed. 36 And Simon and those *who were* with Him searched for Him. 37 When they found Him, they said to Him, "Everyone is looking for You."

38 But He said to them, "Let us go into the next towns, that I may preach there also, because for this purpose I have come forth."

39 And He was preaching in their synagogues throughout all Galilee, and casting out demons.

29 예수님은 회당을 떠나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30 이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사람들이 이 일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31 예수님은 가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러자 즉시 열병이 떠나고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32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33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도 문 앞에 모여들었다.

34 그래서 예수님은 갖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이 자기를 잘 알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35 이른 새벽 예수님은 일어나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다. 36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시몬과 그 일행은. 37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8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운 이웃 마을에도 가서 전도하자. 나는 이 일을 하려고 왔다" 하시고. 39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전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Review

Before we examine our scripture passage for today let's remind ourselves of last week's study. It was the beginning of Jesus' earthly ministry. We find Him walking alongside the beautiful Sea of Galilee. He knew that His time on earth would be short and that He would require helpers to continue the work after He had gone.

The task of these men, we call them disciples, was to take on His teachings and continue the work of expanding the Kingdom. It was an incredibly important mission and required a particular kind of person. The disciples would face tough times, persecution and death. Despite the troubles and trials they faced they must never falter in their mission of faithfully proclaiming the gospel.

The first two disciples called are brothers. Simon Peter and Andrew. They were both fishermen working on the Sea of Galilee. We know from the other synoptic gospels that they had both met and

interacted with the Lord Jesus before. So as Jesus passes them as they fish He calls to them to come and follow Him. Their reaction is dramatic. Mark uses one of his favourite words to describe their response to Jesus' call. They “immediately” stop fishing and go and follow Jesus. They understood exactly what this call meant. Jesus was not calling them to come and join Him for an afternoon, or for a few days. He was calling them to give up everything and adopt (follow) Him as their teacher.

A little later Jesus sees another pair of brothers fishing with their father Zebedee. These are the brothers James and John. Later to be nicknamed “sons of thunder” due to their fiery, temperamental natures. Again Jesus calls out and invites them to come and join Him. Their response mirrors that of Simon Peter and Andrew. The immediately drop what they are doing and leaving their father in the boat they follow Jesus.

To drop everything and to follow Jesus is a radical step in life. If you live in a country or setting in which Christians face persecution it is particularly hard. The Republic of Korea is a very tolerant country. People are free,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law to hold whatever religious beliefs they like. However, even in tolerant Korea people still may face a backlash from their family or friends. They may be mocked or looked down upon. They may find themselves in a difficult position at their companies. I, like many of you grew up in a Christian home. I therefore do not know what it's like to have to give up a particular life style or go against the wishes of other family members. I have read about the difficulties many former Muslims face when they put their faith in Christ and reject Islam. They may be ostracised from their families, shunned by society and even in some cases killed for apostasy. Please keep these brothers and sisters in your prayers.

We do not know what the disciples families thought about them giving up their fishing jobs to follow this rabbi from Nazareth. All we know is that they willingly gave up their jobs and lives to follow Jesus.

So with four disciples now following Him Jesus enters Capernaum. This bustling and important seaside town would serve as Jesus base in the Galilee region. On the Sabbath Jesus went to the local synagogue in order to preach.

오늘의 성구를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공부를 상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아름다운 갈릴리 바다를 따라 걸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지상에서의 그분의 시간이 짧고 그분이 떠난 후에도 일을 계속할 조력자를 요구하실 것임을 아셨습니다. 제자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의 임무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 왕국을 확장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임무였으며 특별한 종류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은 고난과 박해와 죽음에 직면할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충실히 전하는 사명에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름을 받은 처음 두 제자는 형제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은 둘 다 갈릴리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공관복음서에서 그들이 이전에 주 예수님을 만나고 교류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기를 낚는 그들을 지나가실 때 그들에게 와서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의 반응은 극적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즉시” 고기잡이를 멈추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이 부름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후나 며칠 동안이나 와서 그분과 함께 하라고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스승으로 삼으라고(따를) 부르신 것입니다. 조금 후에 예수께서는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고기를 잡는 다른 한 쌍의 형제를 보신다. 이들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불타고 변덕스러운 성격으로 인해 나중에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별

명이 붙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와서 당신과 합류하도록 초대 하십니다. 그들의 반응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을 반영합니다. 하던 일을 즉시 버리고 아버지를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삶의 급진적인 단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나라나 환경에 살고 있다면 특히 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매우 관대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종교적 신념이든 가질 수 있는 법의 경계 내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관대한 한국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가족이나 친구들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롱을 당하거나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회사에서 어려운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따라서 특정 생활 방식을 포기해야 하거나 다른 가족의 뜻에 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많은 이전 무슬림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슬람을 거부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에게서 배척을 당할 수도 있고 사회에서 외면당할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배교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형제자매들을 여러분의 기도에 간직하십시오. 우리는 제자 가족들이 나사렛에서 온 이 랍비를 따르기 위해 낯시 직업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직업과 삶을 포기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네 제자와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이 변화하고 중요한 해변 마을은 갈릴리 지역의 예수 기지역할을 할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설교하기 위해 그 지방 회당에 가셨습니다.

The synagogue was much more than just the local religious building. They often did much more than simply offer worship services on the Sabbath. In 1913 an inscription written by Theodotus was found in the city of David. It lists the purposes and activities undertaken at the synagogue. As we would expect the synagogue was a place to go to hear the law (the Old Testament) read and to receive instruction and training in what the scriptures said. The synagogue was run and maintained by lay men and did not have priests operating them. This meant that elders or senior men in the community would take on the task of reading and talking about the scriptures.

They also welcomed rabbis who were passing by to come in and teach. It was rather like the system we have today of inviting guest pastors to come and preach. It's nice sometimes to hear a different voice and gain another perspective. This was why Jesus was frequently able, especially during the early part of His public ministry to speak in the synagogues.

More surprising was the revelation on the inscription that the synagogue also served as a place to provide meals, drinks and lodging for travellers. If you were passing by a synagogue and it was lunch time you could pop inside and be fed. Also in many cases the synagogues operated as a kind of primitive hospital or place to receive medical care. If you, or a family member was sick you could take them to the synagogue. The rabbi or elders could pray for you or offer basic medical assistance. This of course ties in with the fact that Jesus healed many sick people within the synagogue.

So Jesus was preaching and teaching in the synagogue. Mark tells us He was doing so in a way that astonished His hearers. He was preaching with great authority. He of course knew the scriptures intimately which enabled Him to speak clearly and expound on what they meant. This was very different from the usual style of the rabbis who were typically rather dry and boring.

They spent much of their time quoting what other rabbis thought about the scriptures. Jesus did not need to adopt such an approach. He was, I'm sure the most exciting and engaging preacher there has ever been. At some point during his speaking He is interrupted by a demon possessed man. The demon wanted to know why Jesus is here interfering in their evil work. The demon quite rightly recognises who Jesus is; in His humanity He is Jesus of Nazareth and in His divinity He is the Holy one of God. Jesus does not want the demon revealing who He is, so He rebukes it and commands it

to leave the man.

The naturally causes great excitement and discussion amongst the people. As a result Jesus fame and notoriety spreads.

회당은 단지 지역의 종교 건물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안식일에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 이상의 일을 했습니다. 1913년에 테오도토스가 쓴 비문이 다윗 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회당에서 수행된 목적과 활동을 나열합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바와 같이 회당은 율법(구약성경) 낭독을 듣고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과 훈련을 받기 위해 가는 곳이었습니다. 회당은 평신도들이 운영하고 유지했으며 그들을 운영하는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역 사회의 장로나 연로한 남자들이 경전을 읽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을 맡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와서 가르치기 위해 지나가는 랍비들을 환영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초대 목사를 초청하여 설교하는 시스템과 같았습니다. 때로는 다른 목소리를 듣고 다른 관점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초기에 회당에서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회당이 여행자들을 위한 식사와 음료, 숙박을 제공하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비문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회당을 지날 때 점심 시간이었다면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회당은 일종의 원시적인 병원이나 진료를 받는 장소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당신이나 가족이 아프면 회당에 데려갈 수 있습니다. 랍비나 장로들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거나 기본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수님이 회당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설교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는 청중을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큰 권세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경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소 건조하고 지루한 랍비들의 평소 스타일과 매우 달랐습니다. 그들은 많은 시간을 다른 랍비들이 경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용하며 보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접근 방식을 취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있었던 설교자 중 가장 흥미롭고 매력적인 설교자였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 어느 시점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분을 방해합니다. 귀신은 왜 예수님이 그들의 악한 일에 간섭하시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주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인성으로는 나사렛 예수이시고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꾸짖으시고 귀신에게 그 사람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서 큰 흥분과 토론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명성과 악명이 퍼집니다.

29 Now as soon as they had come out of the synagogue, they entered the house of Simon and Andrew, with James and John. 30 But Simon's wife's mother lay sick with a fever, and they told Him about her at once. 31 So He came and took her by the hand and lifted her up, and immediately the fever left her. And she served them.

Mark takes us directly from the drama of a demonic exorcism to a humble private house. This particular home was where the disciples Andrew and Simon Peter lived. We can also infer from this account that it was also the home of Simon Peter's wife and her mother. Interestingly Simon Peter is the only disciple that we can say for certain was married (1 Cor 9:5). It's possible some of the others were but scripture is silent on the issue.

It's interesting because Peter is claimed by the Roman Catholics to be the head of the church. They claim that the Pope is the successor of this apostle. They also maintain that priests should not marry and in fact remain celibate. I'm sure you can see the problem here. Simon Peter, who was chosen by Christ was a married man. But now those following in Peter's footsteps cannot marry which over

the centuries has led to terrible abuses and many unhappy and unfulfilled men.

The truth is that marriage is a good thing that God has given to us. There is nothing shameful or dirty about it. Those who remain unmarried and celibate are not superior to those who are married. Some, in truth very few may be gifted with the ability to remain single and happy. The Apostle Paul would be an example of this. Most people however are not blessed by God in this way and therefore are called to marry. This includes pastors and those working in the church.

The reason for the visit is not given. Most probably they went to share a meal following the Sabbath worship.

Upon arriving they find that Simon's mother in law is sick and therefore unable to prepare anything for them.

The exact nature of the sickness is open to debate. The Greek word used here is "*puressō*." It refers to the condition of "burning up" or feeling "very hot or feverish." The Talmud describes it as "a burning fever." Doctor Luke in his gospel refers to it as "high fever" (Luke 4:38). The area around Capernaum was known to have marshes that were home to mosquitoes. It may well be that she was suffering with a mosquito born disease like malaria.

Whatever the sickness was it would not not be a problem for the Lord Jesus. Mark tells us that Jesus lifted her up by the hand and the fever immediately left her. Matthew in his gospel tells us that "He touched her hand, and the fever left her" (Matt 8:15). Luke tells us that, "He stood over her and rebuked the fever, and it left her." (Luke 4:38). The take away from every account is that the Lord Jesus had the power to heal her instantly and completely.

I also want you to pay particular notice to the woman's reaction. The moment she was healed she got up and began to serve her guests the Sabbath meal. Isn't that a wonderful reaction. When we are blessed by God our first reaction should be to seek to serve Him. What better way is there to show Him our gratitude.

It also demonstrates to us the complete healing power of Jesus. Often after recovering from a fever we feel weakened or tired for several days. But here we see the Lord Jesus restored her strength immediately. Let us see what resulted from this miracle.

Mark 는 악마 퇴마의 드라마에서 겸손한 개인 주택으로 우리를 직접 데려갑니다. 이 특별한 집은 제자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가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기록에서 그것이 시몬 베드로의 아내와 그녀의 어머니의 집이기도 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시몬 베드로는 우리가 확실히 결혼했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제자입니다(고전 9:5). 다른 사람들 중 일부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 카톨릭에 의해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교황이 이 사도의 후계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또한 사제가 결혼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독신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당신이 여기에서 문제를 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시몬 베드로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수세기에 걸쳐 끔찍한 학대와 많은 불행하고 성취되지 않은 사람들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부끄럽거나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들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사실 일부 사람들은 독신으로 남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결혼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목회자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방문 이유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안식일 예배 후에 식사를 하러 갔을 것입니다. 도착하자

마자 그들은 시몬의 장모가 아파서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질병의 정확한 성격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푸레소”입니다. 그것은 “화끈거림” 또는 “매우 뜨겁거나 열이 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탈무드는 그것을 “타오르는 열병”이라고 묘사합니다. 그의 복음서에서 누가 박사는 그것을 “고열”(눅 4:38)이라고 부릅니다. 가버나움 주변 지역에는 모기가 서식하는 습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라리아와 같은 모기 매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질병이 무엇이든 주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그녀의 손을 들자 열병이 즉시 그녀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그 손을 만지시매 열병이 떠나더라”(마 8:15)고 말합니다. 누가는 “그녀 위에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더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4:38). 모든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주 예수께서 그녀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반응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병이 낫자마자 일어나 손님들에게 안식일 음식을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멋진 리액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그분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감사를 나타내는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완전한 치유 능력을 보여줍니다. 종종 열에서 회복된 후 우리는 며칠 동안 쇠약하거나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즉시 그녀의 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 기적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봅시다.

32 At evening, when the sun had set, they brought to Him all who were sick and those who were demon-possessed. 33 And the whole city was gathered together at the door. 34 Then He healed many who were sick with various diseases, and cast out many demons; and He did not allow the demons to speak, because they knew Him.

I suppose the reaction from the people living in Capernaum was understandable. Word soon spreads that a man who can heal the sick is in town. He happens to be staying in Simon Peter's house. If you had a sick child or relative what would you do? Obviously you would take this person to Simon's house in the hope that they could be healed. This is exactly what happens.

They came in the evening, after sundown. Remember the Jewish day was measured from sunset to sunset. Under the Sabbath laws you were very limited in what you could do. This was especially true for travelling. You were only permitted to travel 2000 cubits or about 1 km (0.5 miles). Once the Sabbath was over there were no travel limits. This meant that people could come from all over Capernaum and any outlying areas. It also meant they could carry the sick or lame which was judged to be a “work” not permitted on the Sabbath. Healing was also considered to be a “work” which was again not allowed on the Sabbath.

The impression Mark gives us is that all the city came to Simon and Andrew's door. These people no doubt had a variety of physical maladies. Remember in those days medical treatments were very limited. If you had a serious disease or medical condition it was just something you had to live and suffer with. We are also told many of those brought to Jesus were possessed by demons. Today this is often interpreted as being some kind of mental illness. The thinking is that people in those times were unable to explain what was wrong with the person and therefore attributed the strange behaviour to a demon.

It may well have been the case that some were suffering from some kind of mental illness. However we should also recognise that demonic activity intensified during Jesus earthly ministry. Jesus cast out these demons but would not let them speak. We spoke about the reason for this last time. Jesus did not want or need the promotion of who He was by demonic entities.

Jesus wanted to prove through His own words and deeds the kind of messiah He was.

No doubt the Lord Jesus was very tired. It had been a long day and the people kept coming late into the night. However our Lord never flagged or turned people away. When people come to Jesus they are always welcome. It is a good reminder to us that Kingdom work is not bound by time. God's Kingdom does not adhere to "office hours." People need help, encouragement, prayer and support at all hours of the day and night. When people need us we must be ready to help, no matter how inconvenient it may be to us. Let us read on.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자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마을에 있다는 소문이 곧 퍼집니다. 그는 시몬 베드로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픈 아이나 친척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당신은 이 사람을 시몬의 집으로 데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해가 진 후 저녁에 왔습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일몰에서 일몰까지 측정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안식일 법 아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여행에 해당되었습니다. 2000 큐빗 또는 약 1km(0.5 마일)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면 이동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가버나움 전역과 모든 외판 지역에서 올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들이 안식일에 허용되지 않는 "일"로 판단되는 병자나 다리 저는 사람을 짊어질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병 고침은 또한 안식일에 다시는 허용되지 않는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주는 인상은 온 도시가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양한 신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치료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심각한 질병이나 질병에 걸렸다면 그것은 당신이 살아가고 고통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인도된 많은 사람들이 귀신들렸다고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종종 일종의 정신 질환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잘못을 설명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이상한 행동을 악마의 탓으로 돌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종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예수께서 지상에서 봉사하시는 동안 마귀의 활동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들을 쫓아내셨지만 그 때에는 말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존재에 의해 자신이 누구인지 홍보하는 것을 원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틀림없이 주 예수님은 매우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낮이 길었고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계속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깃발을 쫓거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면 그들은 언제나 환영받습니다. 그것은 왕국 활동이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좋은 일입니다. 하느님의 왕국은 "근무 시간"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밤낮으로 도움, 격려, 기도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35 Now in the morning, having risen a long while before daylight, He went out and departed to a solitary place; and there He prayed. 36 And Simon and those *who were* with Him searched for Him. 37 When they found Him, they said to Him, "Everyone is looking for You."

38 But He said to them, "Let us go into the next towns, that I may preach there also, because for this purpose I have come forth."

39 And He was preaching in their synagogues throughout all Galilee, and casting out demons.

Now, as I pointed out Jesus was up late into the night healing and dealing with people. Also we know that at times when He healed it physically drained Him of power. This was why from time to time He needed to get away alone and literally "recharge His batteries." Pastors often feel very

drained at the end of preaching and teaching on a Sunday. That is why many take Monday's off to rest and prepare for the week ahead. So we might expect that He would sleep late the following day. This is not what the Lord did. Mark tells us He rose very early, long before the sun came up. Sunrise in Israel is usually around 6 am so Jesus may have risen as early as 4 am! He wasn't just an early riser however. He got up early with a purpose. The reason was He needed time to pray and to be in fellowship with the Father. What a good object lesson this is for us. I'm going to return to this point later. Jesus sought a quiet place in which to commune with the Father. Mark presents us in his gospel with three specific references to Jesus at prayer (1:35; 6:46; 14:32). In each instance Jesus goes off alone in the dark in order to pray.

What was Jesus praying? We don't know exactly what Jesus prayed for, but we can surmise that He used this time of prayer to foster a close, intimate communion with God the Father. This relationship nourished and strengthened His soul. We might assume that Jesus prayed for Himself. He would need spiritual strength for the days ahead. He most probably prayed for His new disciples. He needed them to quickly adapt and adjust to His teaching methods. It's likely that He prayed for those He met and ministered to the previous night. Finally, we might assume that He prayed for those He would meet and minister to that coming day.

When Simon Peter and the other disciples wake up they cannot find Jesus. They do not seem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r need for Jesus to be alone in prayer. This is understandable as they have only just begun to follow Him and are not yet accustomed to His ways. They are concerned because many people are looking for Jesus. So in their minds Jesus is seemingly wasting the opportunity or advantage to promote Himself and His ministry. Their assumption seems to be that Jesus would be pleased at His new found popularity. In those days a rabbi or teacher would be judged on how many followers they had. We do the same thing today with Twitter or other forms of social media.

If a pastor or bible teacher has many followers on social media we assume they must be good or at least popular. Peter of course wrongly assumes the people's motivations. They are not really interested in the Words or message of the Lord Jesus. They are only interested in what they can get from Him.

This is why Jesus tells him that He want to go to other towns to preach to the people there. He was not interested in being famous or popular. His concern was that as many people as possible heard the gospel message. Although healing people was a small component of His ministry the most important aspect was preaching or proclaiming the Kingdom.

Verse 39 summarizes Jesus Galilean ministry over an unspecified period of time. It may have been weeks or even months. Jesus focused His ministry during this time in the synagogues. This was because His mission was essentially religious and not political. During this time he concentrated on proclaiming that the Kingdom of God was here. He authenticated His preaching with miracles, the most dramatic of which were the casting out of demons. Next week Lord willing we will see how Jesus healing ministry begins to cause friction with the Jewish authorities.

이제 내가 지적했듯이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치료하고 다루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때때로 그분이 병을 고치셨을 때 육체적으로 그분의 권세를 고갈시켰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그분은 홀로 가셔서 문자 그대로 “그분의 배터리를 재충전”하셔야 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주일에 설교하고 가르칠 때 매우 피곤함을 자주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을 쉬고 다음 주를 준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다음 날 늦게 잠을 잘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는 해가 뜨기 훨씬 전에 그분이 아주 일찍 일어나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일출은 보통 오전 6시경

이므로 예수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적을 가지고 일찍 일어났다. 그 이유는 그가 기도하고 아버지와 교제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실물 공과입니다. 나중에 이 지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으셨습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구체적인 언급을 제시합니다(1:35, 6:46, 14:32). 각각의 경우에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홀로 어둠 속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이 기도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친밀한 교제를 조성하기 위해 사용하셨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분의 영혼에 영양을 공급하고 강화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날을 위해 영적인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새로운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의 가르치는 방법에 빠르게 적응하고 적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전날 밤에 만나 성역을 베푸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분이 그 날에 만나서 성역을 베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깨어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예수님이 홀로 계시는 것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제 막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고 아직 그분의 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은 자신과 그분의 사역을 홍보하기 위해 기회나 이점을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가정은 예수께서 새롭게 발견된 인기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랍비나 교사가 얼마나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트위터나 다른 형태의 소셜 미디어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나 성경 교사가 소셜 미디어에서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훌륭하거나 적어도 인기가 있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사람들의 동기를 잘못 가정합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의 말씀이나 메시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분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동네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유명하거나 인기를 얻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메시지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은 그분의 사역의 작은 부분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측면은 왕국을 전파하거나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39 절은 불특정 기간에 걸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요약하고 있다.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간 동안 회당에서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명이 본질적으로 종교적이지 정치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에 있다고 선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분은 기적을 통해 자신의 설교를 입증하셨는데, 그 중 가장 극적인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유대 권위자들과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1. The absolute necessity of prayer

What is your prayer life like? I hope you find time every day to spend quality time in prayer with God. I suspect that when you are busy, stressed or preoccupied that your prayer life suffers. I know that is how things are for me. The busier we get the less time we devote to prayer. As we have seen over the past couple of studies Jesus had been incredibly busy. Preaching in the synagogue, and then spending all evening healing the sick. Surely a long sleep was in order. Of course not. Jesus

understood that it was essential that He spend time in prayer. So much so that He prioritised it over sleep. How many of us would wake up very early in order to pray? I suspect very few. So think for a moment. If Jesus needed quiet prayer time for fellowship with the Father, then we definitely need it. It's not an optional extra. In order to be ready to face the day and serve the Lord we need to first assign time to prayer. Let us all then recognise the absolute necessity of prayer.

당신의 기도생활은 어떻습니까? 매일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양질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신이 없을 때 기도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바쁠수록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몇 번의 연구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회당에서 설교하고 저녁 내내 병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확실히 긴 수면이 순서대로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니지. 예수님은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이해하셨습니다. 잠보다 그것을 우선시할 정도로.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 아주 일찍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극소수를 의심한다. 그러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교제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추가 옵션이 아닙니다.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주님을 섬기려면 먼저 기도할 시간을 할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기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인식합시다.

2. Focusing on what is most important

Today's churches are hives of activity. Big churches offer Sunday worship, choir practice, Sunday schools for children, bible studies, cell groups, lectures, meetings and many other things. Some churches also run soup kitchens for the homeless, orphanages, exercise classes and children's day care centres. All of these things are good and often greatly needed. However I do sometimes wonder if in our desire to do everything we miss what is most important. The Lord Jesus today modelled for us what our priority ought to be. He could have gone back into Capernaum and ministered to the sick and needy. This would have been a good thing. The people there would have had their lives transformed. This however was not what Jesus did. The reason was He had a more important mission to fulfil. That mission was proclaiming the gospel. The reason why it takes precedence over other things is that its focus is on the eternal. Here on earth we may be hungry, poor or sick. No one obviously wants these things but when we place our short lives here on earth against eternity we see what is really important. So in doing good and helping others let us never forget that the help all lost souls really need is to hear the gospel message.

오늘날의 교회는 활동의 하이브입니다. 큰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성가대 연습, 어린이 주일학교, 성경 공부, 세포 그룹, 강의, 모임 및 기타 여러 가지를 제공합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노숙자, 고아원, 운동 교실 및 어린이집을 위해 급식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좋고 종종 크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때때로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우선 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으로 돌아가 병들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삶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는 수행해야 할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하는 이유는 그 초점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배고프거나 가난하거나 아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러한 것들을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을 거슬러 짧은 삶을 살 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고 다른 사

람들을 도울 때 모든 잃어버린 영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은 복음 메시지를 듣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